

테일러드 재킷의 패턴 해체를 통한 패션디자인 연구

천 미 자 · 박 주 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석사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해체주의 패션 현상을 고찰하고 이를 오랫동안 고정된 형태를 지닌 테일러드 재킷의 패턴에 적용하여 패션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테일러드 재킷을 사적고찰하고 테일러드 재킷의 구성 요소를 고찰하였으며, 사례연구로서 최근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해체주의 표현 특성과 테일러드 재킷에 나타난 패턴 해체의 표현 특성을 탐구하였다. 최근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테일러드 재킷의 패턴 측면의 특성으로는 ‘복식구조 및 디자인원리의 해체’, ‘비확정적인 착장방식’, 그리고 ‘구멍내기’의 사례가 고찰되었으며, ‘복식구조 및 디자인 원리의 해체’ 방식에 따른 현대패션의 사례연구에서 테일러드 재킷의 구성요소 중 나타나지 않은 몸판과 소매, 그리고 디테일 패턴의 해체를 적용한 패션디자인 5점을 개발, 작품을 제작하였다. 디자인 개발은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특성 중 복식구조 및 디자인원리의 해체로 의복을 구조적으로 분리한 뒤 재구성하여 기존의 위치와 기능을 무시하는 전위 방식과 탈비율, 탈균형, 탈중심의 디자인 원리해체의 방식을 모두 반영하여 진행하였으며,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패턴 조각의 자유로운 위치이동 및 확대와 왜곡을 통한 형태변화를 시도하였다. 각각의 디자인은 비율과 피, 위치이동, 균형과괴, 중심해체, 구성요소의 기능상실 등 해체주의적 표현방식 5가지와 패턴조각 8가지(앞 몸판, 앞 옆판, 뒷 몸판, 뒤 옆판, 바깥소매, 안소매, 칼라, 라펠)를 개별 혹은 중복으로 조합하여 개발되었다. 개발된 작품은 울 서지 소재의 원피스드레스 2점과 재킷 2점, 그리고 울나일론 멜톤 소재의 오버코트 1점이며, 모두 솔리드 블랙 색상으로 제작되었다. 본 연구는 테일러드 재킷을 구성하는 다양한 패턴조각의 해체주의적 조작 실험을 통해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특성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 개발 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해체주의, 해체주의 패션, 테일러드 재킷, 패턴 해체, 패션디자인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박주희, ju-hee@kookmin.ac.kr

접수일: 2018년 1월 31일, 수정논문접수일: 2018년 3월 2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12일

I. 서론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1960년대에 제시한 해체주의는 80년대의 레이 가와 쿠보(Rei Kawakubo)를 비롯한 일본의 패션 디자이너들, 그리고 90년대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작품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감이 되었다. 그들이 시도한 착용방식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다양한 기능의 의상, 찢어지거나 올이 풀린 시접을 드러낸 의상, 작업 중인 의상 등 전통적인 개념이나 형태를 파괴하는 다양한 실험은 20세기말 해체주의 패션 현상을 확산시켰다. 한편, Kim and Ha(2016)는 기존의 해체주의 패션이 대중의 수용 가능성보다는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가치와 표현 방식을 전위적으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대중의 사고와 요구를 디자이너의 시각과 경험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을 신-해체주의라 규정하고 평범함을 추구하는 님코어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패션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젊고 혁신적인 디자이너들의 해체주의 실험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에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오늘날 새롭게 시도되는 해체주의를 고찰하고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과 표현방식을 활용한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모든 고정관념 대신 다시 상상하며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 해체주의적 실험의 대상으로 테일러드 재킷(tailored jacket)을 선정하였다. 테일러드 재킷은 오랜 기간 정형적인 형태를 유지해온 의상 스타일이며, 일정한 형태를 가진 여러 개의 패턴 조각으로 이루어져 해체주의적 표현 특성에 따른 디자인 개발에 적합한 대상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패션에 나타난 테일러드 재킷의 해체현상을 고찰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한 후 이를 테일러드 재킷 패턴에 적용하여 패션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테일러드 재킷을 구성하는 다양한 패턴조각의 해체주의적 조작 실험은

무궁무진한 디자인 개발가능성을 내재한 해체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확대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첫째, 테일러드 재킷의 변천과 구성요소를 고찰하고 둘째, 해체주의 패션의 미적 특성과 의복구성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표현 특성을 고찰하며 셋째, 최근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특성을 가진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을 분석하여 넷째, 이를 테일러드 재킷의 구성 요소에 적용하여 패션디자인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작품 제작으로 진행한다. 사례연구의 범위 및 대상은 템나 바잘리아(Demna Gvasalia)를 비롯한 실험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해체주의 패션이 재등장한 시기인 2013년 F/W에서 2017년 F/W까지의 컬렉션에 나타난 해체주의가 반영된 테일러드 재킷이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한 디자이너는 보그코리아를 비롯한 패션매체의 기사와 컬렉션 리뷰, 선행연구에서 해체주의 디자이너로 논의된 디자이너 22인 중, 해당기간 활동하지 않았거나 해체주의적 테일러드 재킷을 발표하지 않은 디자이너를 제외한 16인의 디자이너(티에르 뮈글러(Thierry Mugler),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 요지 야마모토(Yoji Yamamoto),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자크뮈스(Jacquemus), 톰 브라운(Tom Brown),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템나 바잘리아(Demna Gvasalia),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하이더 아커만(Haider Ackermann), 필립 림(Phillip Lim), 라프 시몬스(Raf Simons), 마르케스 알메이다(Marques' Almeida),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이다. 본 연구는 해당 디자이너의 아이템 구분이 모호한 사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패션컬렉션 정보 사이트 퍼스트뷰의 런웨이 항목에서 'Coat & Jacket'을 검색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해당 디자이너의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특성을 가진 테일러드 재킷은 총 457점이었으며, 그중 패션디자인 전공 석, 박사 5인의 검증을 통해 최종 303점이 채택되었다.

II. 테일러드 재킷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테일러드 재킷의 정의와 구성요소

테일러드 재킷은 테일러드 칼라가 있는 남성의 신사복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재킷이다(Ahn, 2008). 프랑스어 'jaquette'은 11~12세기 군인들이 갑옷 아래에 착용한 조끼 형태의 의복 '자크(jaque)'에서 유래되었으며 자크는 13세기에 재킷형 상의인 푸르푸앵(pourpoint)으로 발전했다. 소매가 없는 조끼 형태의 자크에 소매와 단추를 사용한 앞여밈을 더하고 입체적인 재단방식을 사용한 인체에 꼭 맞는 형태인 푸르푸앵은 일반적인 남성의 상의 겉옷으로 착용했으며 오늘날 재킷의 기원이 된다. 19세기 이전까지 재킷은 남성의 전유물이었으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여성에게도 허용, 이후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함께 여성복 상의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재킷은 오늘날 연령 및 성별에 관계없이 착용 가능한 상의의 총칭이 되었다(Lee, 2004). 재킷은 보통 허리길에서 엉덩이길일까지 내려오거나 혹은 그 보다 긴 길이에 앞 중심이 트여져 있으며 그 형태나 길이, 목

적, 용도, 재질 등에 따라 분류되며 앞여밈, 칼라, 소재, 버튼 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Ahn, 2008).

테일러드는 신사복을 만들거나 수선하는 사람을 뜻하는 테일러(tailor)가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 옷을 제작하는 테일러 메이드(tailor made)를 말하며 드레스 메이킹(여성복을 제작하는 것)의 부드러운 제작방법과 대칭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Ahn, 2008). 또한 드레스 메이킹에 비해 소재와 형태, 봉제 방법이 딱딱하며 단단하게 만드는 것 또는 이렇게 만들어진 남성복종의 의복을 말하며 장식 없이 비교적 단순한 라인으로 맞춤에 따라 스타일이 완성되는 의류를 지칭한다(Ahn, 2008). 한편 테일러드 칼라는 재킷의 앞몸판에서 이어진 라펠과 앞몸판과 분리된 칼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펠과 칼라의 연결 부분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분류된다(Kim, 2008). 테일러드 칼라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남성복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나, 오늘날 남성복뿐만 아니라 여성복 재킷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테일러드 재킷은 테일러드 칼라가 달려 있고 몸판뿐만 아니라 소매나 포켓에도 남성복 상의와 같은 딱딱한 느낌의 남성복용 소재를 사용하는 남성복의 형태로 만들어진 남·녀 재킷의 기본 형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Ahn, 2008).

본 논문에서는 기본 테일러드 재킷의 의복구성 요소의 명칭을 의복구성 서적 5권(Cho, 2016; Choi et al., 2009; Lee, 2004; Lee, 2012)을 바탕으로 추출하여, <Figure 1>, <Table 1>과 같이 앞몸판, 앞옆



Figure 1.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

Table 1. 테일러드 재킷의 구성 요소.

| 분류 | 소분류 |
|-----|-----------------------------------|
| 몸판 | a: 앞몸판 b: 앞옆판 c: 뒤몸판 d: 뒤옆판 |
| 소매 | e: 바깥소매 f: 안소매 |
| 디테일 | g: 칼라 h: 라펠 i: 벤트 j: 주머니 k: 단추 |

판, 뒤몸판, 뒤옆판, 겹소매, 안소매, 라펠, 칼라, 벤트, 포켓, 단추로 사용하고자 한다.

2. 테일러드 재킷에 대한 사적 고찰

본 절에서는 테일러드 재킷의 사적 변화를 재킷형 상의 형성기, 재킷형 상의 과도기, 재킷 정착기, 테일러드 재킷 완성기, 여성 테일러드 재킷 정착기로 나누어, 의복구성 관점의 형태 변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재킷형 상의 형성기(11세기~14세기)

재킷은 십자군 전쟁 당시 군인이 착용한 ‘자크’로부터 유래되었다. 자크는 허리까지 오는 짧은 길이의 조끼로서, 허리선에 짧은 페플럼이 달려 있으며 겨드랑이 아래 트임을 끈으로 여며 인체에 꼭 맞게 착용하였다. 안쪽에 가죽 또는 모직으로 된 패드를 넣고 누벼 단단하게 만들어진 자크는 갑옷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했으며, 11세기부터 1420년경까지 착용되었으며 이후 사라졌다(Choi, 1994).

13세기경 초기 형태의 자크는 소매가 있으며 앞트임에 단추와 단추 구멍으로 여미는 재킷 형태의 상의인 푸르푸엥으로 발전했다. 이는 서양 복식에서 최초로 단추를 사용하여 앞을 여미는 상의 겹옷으로서 남성 재킷의 시초가 되었으며, 이후 다트나 솔기를 활용하는 방식의 입체적인 재단법이 발달하게 되어 인체의 곡선을 그대로 나타내는 입체적인 의복의 형태로 나타났다(Shin, 2016). 푸르푸엥에는 허리선 아래에 스커트 형태의 몸에 맞거나 주름이 있는 짧은 페플럼이 달리기도 했으며 길이는 엉덩이에서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등 다양했다. 또한 네크라인을 높이거나 스탠딩 칼라를 달기도 하였고, 후기로 갈수록 의복의 길이가 점점 짧아졌으며 소매의 윗부분을 부풀리는 퍼프를 적용하여 어깨를 과장했다(Na, 2003), (Figure 2).

2) 재킷형 상의 과도기(15세기~17세기)

15세기에 푸르푸엥은 갑옷의 아래가 아닌 겹옷으로 드러나게 착용되며 대표적인 남성복 상의로 자리를 잡았다. 푸르푸엥은 영어로 더블릿(doublet)이라 불렸으며, 몸판과 소매에 심을 사용하여 가슴과 어깨를 부풀렸다. 초기에는 윗몸이 잘 맞고 소매가 팔에 꼭 끼는 형태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소매의 윗부분을 부풀리고 소매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로 변화했다. 또한 의복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허리는 인체에 꼭 맞게 하여 상체를 더욱 과장되어 보이게 했다(Shin, 2016).

16세기의 더블릿은 허리 아래에 스커트 부분이 있는 것과 짧은 페플럼이 달린 것, 소매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네크라인은 칼라가 없이 스퀘어 또는 타원형이었으나 후기에는 낮은 네크라인에 스탠딩 칼라를 달았으며, 칼라 끝이 귀에 닿을 정도로 높아지기도 했다. 더블릿의 앞여밈은 단추, 후크, 끈을 사용하여 여몄다. 끈으로 여밀 때에는 매듭과 매듭 사이를 슬래시로 벌어지게 하여 더블릿 아래에 착용한 의복이 드러나게 했다(Shin, 2016). 또한 몸판과 소매에 슬래시를 주어 원단으로 바인딩 혹은 자수 처리하여 화려하게 장식했다. 소매는 몸판과 따로 만들어 진동돌레에서 끈으로 연결하여 착용하기도 했는데 이때 진동돌레에 wing(윙)이나 에폴렛(epaulet)이라는 심을 넣어 둥글게 만든 장식을 달아 몸판과 소매가 연결된 부분을 가렸다(Yoo et al., 1996). 더블릿은 17세기에 들어서 허리선이 높아지고 소매 폭은 더욱 좁아졌으며, 후기로 갈수록 옆선이 직선으로 재단되어 여유가 생겨 활동하기 편한 스타일로 변화했다(Figure 3).

3) 재킷 정착기(18세기)

18세기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공식복으로 착용된 화려한 상의는 아비 아 라 프랑세즈(habit a la

francaise)로서, 소매의 폭이 좁고 소매 밑단 트임에 단추가 달리거나 커프스가 달려 안에 착용한 슈미즈의 러풀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아비 아 라 프랑 세즈는 후기로 갈수록 밑단의 폭이 좁아지고 직선 적인 재단방식을 사용하여 수수하고 실용적인 의 복 형태로 변화했다(Figure 4).

18세기 후반에는 영국풍의 여러 종류의 르덴고 트가 나타났다. 더블 브레스트의 르덴고트 아 라 레비트(Redingote a la levite)에 구성된, 네크라인에 서 높게 올라가 어깨를 덮는 듯한 턴오버 칼라는 후에 테일러드 칼라로 발전하였다. 여성적인 분위 기의 로브와는 대조적인 남성적인 디자인의 르덴 고트 가운은 승마복으로서 오버드레스 역할을 했 으며 이는 오늘날 여성 코트의 기원이 되었다 (Chung, 2003), (Figure 5).

프록 코트는 허리를 인체에 꼭 맞게 하여 여유 분을 없애고 앞 몸판의 허리에서부터 밑단까지 사 선으로 재단되고 뒤 중심은 갈라진 연미복 형태의 상의로서, 주로 앞중심의 단추를 여미지 않고 안 에 착용한 베스트가 보이게 착용했다. 이때 역삼 각형의 실루엣을 연출하기 위해 어깨와 가슴부분을 부풀리고 좁은 폭의 바지를 착용했다(Shin, 2016).

4) 테일러드 재킷 완성기(19세기)

19세기는 의복구성의 발전으로 복식의 구조가 정립된 시기이다. 특히 남성복식의 경우, 테일러드 재킷과 바지를 기본으로 하는 오늘날의 형태가 확 립되었다. 이 시기의 남성 테일러드 재킷에는 색 코트, 모닝코트, 테일 코트, 라운지 수트 등이 있 다. 오늘날의 남성복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색코 트는 소매통과 몸에 여유가 있는 박스형의 재킷으 로 스포츠웨어로 착용했으며, 모닝코트는 앞여밈 이 싱글 또는 더블이며 앞밑단을 허리선 아래부터 밑단까지 사선으로 처리한 형태의 약식 예복이었 다. 앞몸판의 허리가 잘리고 뒤몸판은 무릎 아래 까지 사선으로 경사진 형태를 지닌 테일 코트는

인체에 꼭 맞는 형태로 의복에 여유분량 없이 작 게 재단하여 앞을 여밀 수 없는 열린 상태로 착용 하였다(Figure 6). 한편 테일 코트와 색코트가 절충 된 형태로서 라운지 수트는 후에 텍시도로 발전 하였다(Park & Choi,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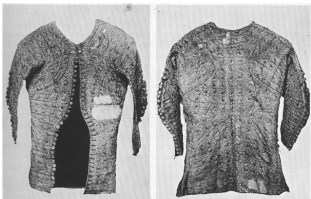













5) 여성 테일러드 재킷 정착기(20세기)

남성 테일러드 재킷이 일정한 형태로 유지된 반면, 여성 테일러드 재킷이 시기별 변화를 보이 며 정착된 20세기는 여성복에 제한하여 고찰하고 자 한다.

여성이 스포츠웨어가 아닌 비즈니스 수트로 테일 러드 재킷을 착용한 계기는 공식 석상에서 입을 단순 한 옷을 찾고 있던 알렉산드라 왕비(Queen Alexandra) 에게 디자이너 존 레드펀(John Redfern)이 테일러드 수트를 제안, 이후 유행을 선도하는 여성들에게 확산 된 사실로 거슬러 올라간다(Lee & Park, 2011).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 재킷은 군복의 영향으로 남성적 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 소재와 스타일 모두 남성의 유니폼과 비슷했다(Lee & Park, 2011). 이 시기의 디자 이너들은 스커트와 함께 구성된 테일러드 수트로 현 대화된 여성의 독립성을 표현하였다(Figure 8). 1920 년대에는 포켓을 달아 기능성을 강조하고 남성적인 칼라와 라펠을 가진 박스형 재킷이 남녀평등 현상으 로 나타났다(Figure 9). 1931년 엘자 스킨아파렐리 (Elsa Schiaparelli)가 처음으로 여성복에 큰 어깨 패드 를 사용하여 크고 각진 어깨의 재킷디자인을 발표했 다. 패드를 넣어 어깨가 강조된 남성적인 실루엣의 테일러드 재킷은 많은 여성들에게 전파되었다 (Worsley, 2012), (Figure 10).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여성복 재킷은 군복의 영향을 받아 남성적 요소가 많이 가미 된 형태를 보였으며, 여유가 있고 활동성이 높아 실용적이었다(Figure 11).

1947년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이 발표한 뉴룩 재킷은 남성복의 직선적인 실루엣에서 벗어나 재킷의 허리가 인체에 꼭 맞는 형태로서 밑단의 너

Table 2. 재킷 변천.

| 14세기 푸르푸엥 | 15-16세기 더블릿 | | 18세기 라비아라프랑세즈, 르덴고트 | |
|---|---|--|---|---|
|  |  | |  |  |
| <p>Figure 2. 푸르푸엥. From Boucher and Deslandres. (1996). p. 197.</p> | <p>Figure 3. 더블릿. From Boucher and Deslandres. (1996). p. 226.</p> | | <p>Figure 4. 아비아 라 프랑세즈. From Chung. (2003). p. 257.</p> | <p>Figure 5. 르덴고트 가운. From Chung. (2003). p. 307.</p> |
| 19세기 | 1910년대 | 1920년대 | 1930년대 | 1940년대 |
|  |  |  |  |  |
| <p>Figure 6. 테일 코트. From Shin. (2016). p. 285.</p> | <p>Figure 7. 워킹 드레스. From Walking costume. (n.d.). http://collection.vam.ac.uk</p> | <p>Figure 8. 테일러드 수트. From Kim. (2010). p. 23.</p> | <p>Figure 9. 더블 브레스트 재킷. From Kim. (2010). p. 27.</p> | <p>Figure 10. 테일러드 수트. From Cawthorne. (1998). p. 56.</p> |
| | | | | <p>Figure 11. 밀리터리 재킷. From Jacques Fath. (1940-1944). (n.d.). https://theredlist.com</p> |
| 1950년대 | 1960년대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  |  |  |  |  |
| <p>Figure 12. 뉴룩. From Christian Dior (1905-1957). (n.d.). https://theredlist.com</p> | <p>Figure 13. 세미 피티드 재킷. From Pierre. (2011). p. 343</p> | <p>Figure 14. 이브 생 로랑. From Yves Saint Laurent (1936-2008). (n.d.). https://theredlist.com</p> | <p>Figure 15. 제프리빈. From Lee and Park. (2011). p. 242.</p> | <p>Figure 16. 티에리 뮈글러, (1986). From Buxbaum. (2009). p. 228.</p> |
| | | | | <p>Figure 17. 랄프로렌, (1995). From Stephanie Seymour for Ralph Lauren, 1995. (n.d.). https://pleasurephoto.wordpress.com</p> |

비를 크게 한, 종 모양의 재킷이다. 디올은 1950년대에 여성의 인체 곡선을 강조하는 여러 라인의 재킷을 발표했으며 그 시기의 유행을 주도했다(Lee,

2007), (Figure 12). 1950년대 여성의 테일러드 재킷은 여성의 인체 곡선을 강조한 디올의 뉴룩 재킷과 크리스토폴 발렌시아가(Christobal Balenciaga)의 가

슴과 허리를 적당히 강조하면서 직선적인, 세미 피티드 롱 재킷의 두 가지 형태가 대표적이다(Figure 13). 1960년대에는 남성 재킷의 형태를 그대로 여성에 적용시켜 여성 드레스를 대신하도록 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입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르 스 모킹’ 스타일이 유행했으며(Figure 14), 1970년대에는 남녀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유니섹스 스타일의 의복이 나타났다. 여성의 재킷은 어깨에 패드를 넣어 너비를 확대하고 큰 테일러드 칼라, 긴 길이의 재킷으로 남성복을 모방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소재도 남성복 소재를 사용하기도 했다(Figure 15). 이 경향은 1980년대의 ‘파워 슈트’로 이어져 여성들은 각진 패드로 어깨를 더욱 강조한 재킷을 착용했다(Figure 16). 1990년대에 여성 재킷은 미니멀한 슬림 라인의 맞춤새가 좋은 클래식 디자인으로 나타났다(Figure 17).

재킷의 시대별 변천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III. 최근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표현 특성

본 장에서는 최근 논의되는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 그 중 패턴에 관련된 표현 특성을 도출하여 최근 발표된 컬렉션에 나타난 테일러드 재킷을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1966년 국제 심포지엄에서 프랑스의 철학자, 데리다는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통해 해체주의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데리다는 기존의 관념이나 철학적 사유 등 모든 것은 이미 그 구조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으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거나 다른 표현방법을 생각하기를 제안하며 로고스 중심주의와 단절할 것을

선언하였다(Lim, 2014). 이것은 서구의 형이상학과 경직되고 고정화된 이성주의의 대한 반기라 할 수 있으며(Lee, 2002), 모더니즘의 감수성과는 다른 탈모더니즘으로서 비주류와 타자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주장이었다(Kim & Ha, 2016).

해체주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패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패션에서 해체주의는 1989년 마르지엘라가 선보인 1990년 S/S 컬렉션에 대한 논의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Jang & Lee, 2006). 해체주의는 외부구조를 파괴하는 일련의 파괴적인 의미보다는, 보충을 통해 기본 구조가 가지는 것이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을 드러내게 하여 기존의 근본적으로 부족한 구조 자체를 안정적이게 하고자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Lim, 2014). 이에 패션에서는 기존의 가치관과 전통에 위배되는 전위의 방법, 소재의 다양화, 과도한 노출, 전통적 패션의 형태 파괴 등으로 해체주의가 나타났다. 즉, 해체주의 패션은 문자 그대로 봉제선이 떨어져 나가고 소매가 분리될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의복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다시 상상되고 실험되는 것을 말한다(Kim, 1994).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해체주의의 근간인 데리다의 해체 이론을 패션에 적용한 사례에서 ‘차연’, ‘상호텍스트성’, ‘탈중심성’, ‘불확정성’, ‘Dis, De의 탈현상’ 5가지의 미적 특성을 밝혀냈으며, 이를 ‘시·공간의 재조합’, ‘성 경계의 해체’, ‘하위문화의 재조합’, ‘비확정적인 착장방식’, ‘복식 구조 및 디자인 원리 해체’, ‘속옷의 겉옷화’, ‘비침 소재’, ‘구멍 내기’, ‘중고 스타일’, ‘재활용 의상’, ‘자연주의’, ‘탈 TPO’, ‘부조화 코디네이션’ 등 13가지의 표현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차연은 공간적 개념 차이의 의미와 시간적인 개념 지연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 개념을 통해 불변에 대한 항구적 의미는 제거

Table 3.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특성과 표현 방식.

| 표현 특성 | 표현 방식 |
|-------------------|--|
| 시·공간의 재조합 | 시·공간을 초월한 양식들의 재조합으로 시대 및 공간을 넘어서거나 디자이너만의 이질적인 코드 표현 |
| 성 경계의 해체 | 남녀의 성에 맞는 착장법 해체로 남녀 성적 매력을 서로에게 교차, 혼합하여 사용하는 성별 구분 없는 착장 |
| 하위문화의 재조합 | 비주류 문화와 하위문화의 재조합을 이용하여 반문화적, 다문화적 성향 표현 |
| 복식 구조 및 디자인 원리 해체 | 기존 복식 구조 및 구성 방식의 탈피 혹은 구성선에서 떨어져나가 조형 원리를 벗어난 재조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 창조 |
| 비확정적인 착장방식 | 일본 전통 복식의 착장법과 직선적인 재단법을 이용한 착장 후 형태가 완성되는 완결되지 않은 비구축적 형태 |
| 속옷의 겹옷화 |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을 겹으로 드러내어 일탈을 의미 |
| 비침 소재 | 원단의 비침으로 인한 간접적인 노출 표현, 신체 노출은 통한 씨 쓰루 룩 |
| 구멍 내기 | 하위문화 스타일에서 보여지는 슬래시, 비우기, 잘라내기 등의 표현 방식 |
| 중고 스타일 | 겉옷을 찢어서 입는 등의 의복을 손상시켜 표현 |
| 재활용 의상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은 소재, 색이 바라고 닳은 듯 한 복식 또는 자원재활용의 의미를 내포한 의복 표현 |
| 자연주의 | 중고 의류의 재활용으로 에콜로지적 표현, 의도적으로 의복을 손상하는 등의 표현 |
| 탈 TPO | TPO에 적합한 착장 방법을 해체시켜 이분법적 관념을 무너뜨리는 방식 |
| 부조화 코디네이션 | 용도가 다른 결합 등 목적, 이미지, 용도가 다른 아이템 또는 색채, 소재의 결합 |

From Kim and Ha. (2016). p. 134.

된다. 패션에서 대표적인 차연의 표현 특성은 시·공간을 초월한 양식들의 재조합으로 과거에 대한 향수뿐만 아닌 과거에 만들어지고 시도된 것들을 조합하여 새롭게 않은 새로움의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예로 들 수 있다(Kim et al., 1999). 상호 텍스트성은 기존 사회 규범의 이분법적 표현 방법을 붕괴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보다 다양성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Kwon, 2007) 패션에서는 성 경계의 해체, 탈 TPO, 속옷의 겹옷화 등으로 이분법적인 관념을 무너뜨리는 표현 특성을 통해 시도되었다(Kim & Ha, 2016). 탈중심성은 서구의 전통적인 근원이나 권위를 벗어나 중심에 있는 것들을 해체시키는 것으로, 패션에서는 소외되었던 비주류 문화와 하위문화의 재조합을 이용하여 의복에 드러내(Kwon, 2007), 중고 스타일, 재활용 의상, 자연주의, 부조화 코디네이션의 표현 특성을 활용하였다. 불확정성은 텍스트의 불안정성과 비확정성에 근거하여 모든 체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음을 밝힌 해체주의 개념을 바탕으로(Kim, 1995),

패션의 대표적인 표현 특성으로는 복식의 착장법을 근간으로 의복의 착용으로서 완결되는 잠재적인 형태, 열린 비확정적인 착장방식이 있다(Kim et al., 1999). Die, De의 탈현상은 일상적인 현상의 탈피를 의미하며 패션에서는 왜곡과 과장을 통한 기존 복식 구조 및 구성 방식의 탈피나 구멍내기의 표현 특성을 활용한다(Kim & Ha, 2016).

각각의 미적특성이 지닌 개념과 13가지 표현 특성 및 방식은 <Table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Kim & Ha, 2016). 본 연구는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특성 중 패턴의 해체현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상의 표현 특성에서 패턴 해체를 적용한 특성인 ‘복식 구조 및 디자인 원리 해체’, ‘비확정적인 착장방식’, ‘구멍 내기’에 집중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복식 구조 및 디자인 원리 해체

20세기 해체주의는 복식 구조 및 디자인 원리 해체는 왜곡과 과장을 통한 기존 복식 구조 및 구

성 방식을 해체하거나 혹은 구성선에서 떨어져나가 비례, 균형, 리듬, 통일의 조형 원리를 벗어나 재조합하여 무질서한 디자인 원리를 제시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듦으로써 복식의 기존 개념을 파괴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이는 의복의 앞 뒤를 전환하여 기존의 위치를 재배열한 고티에의 <Figure 18>, 가와쿠보의 소매를 제거하여 기존의 구성 형태의 질서를 파괴하는 의복에서 볼 수 있다(Figure 19).

최근의 해체주의에서도 사이즈의 변형, 혹은 복식의 구조나 디자인의 원리를 무시한 재조합의 표현 특성이 나타났으나 과거의 해체주의와는 달리 실생활에 착용 가능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Figure 20>, <Figure 21>에서는 기존의 익숙한 구성 요소의 위치와 형태를 변형하여 의복을 해체한다. 이는 대중의 니즈에 적합하도록 일상으로도 착용 가

능한 현실적이고 순간의 우연성으로 완성되는 재미와 유희를 추구하고 있다(Kim & Ha, 2016).

2) 비확정적인 착장방식

비확정적인 착장방식은 20세기 말 해체주의 패션에서 인체 위에 착용 된 후 논의가 가능한 비확정적이며, 착용 후의 형태가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가능하여 완결의 형태를 거부한 미완결의 불확정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20세기 해체주의 패션은 2차원적인 소재가 3차원의 입체에 착용됨으로써 완결되는 비확정적이며 착용 후의 형태가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가능한 잠재적인 형태를 추구하며 미완결의 불확정성을 나타냈다(Figure 22).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해체주의는 바잘리아의

Table 4.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특성.

| | 복식 구조 및 디자인 원리 해체 | | 비확정적인 착장방식 | 구멍내기 |
|-----------|--|--|---|---|
| 20세기 해체주의 |  <p>Figure 18. 장 폴 고티에, 1985. From John Paul Gaultier backwards jacket. (2014). http://blog.fidm-museum.org</p> |  <p>Figure 19. 폼 데 가르송, 1995. From Rei Kawakubo-Comme des Garçons (1942). (n.d.). https://theredlist.com</p> |  <p>Figure 22. 폼 데 가르송, 1983. From The Architects at Work: Issey Miyake, Rei Kawakubo, and Yohji Yamamoto. (2016). https://www.whatgrandmawore.com</p> |  <p>Figure 24. 비비안 웨스트우드, (1991). From Vivienne Westwood. (1991). https://myhautewardrobe.com</p> |
| 최근의 해체주의 |  <p>Figure 20. 2014 F/W 자크 뤼스 1. From Jacquemus-Ready-to-Wear-Runway Collection -Women. (2014). http://www.firstview.com</p> |  <p>Figure 21. 베트멍, (2016) 1. From Vetements_official. (2016). http://www.instagram.com</p> |  <p>Figure 23. 베트멍, (2016) 2. From Vetements-Ready-to-Wear-Spring Summer 2016. (2016). http://vetementswebsite.com</p> |  <p>Figure 25. 2015 F/W 마르케스 알메이다. From Marques Almeida-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5). http://www.firstview.com</p> |

<Figure 23>과 같이 착용자의 의도대로 허리 부분의 스커트를 묶거나 또는 묶지 않는 등의 다양한 의복으로 변형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 형식으로 착용자에 의해 그 형태가 완결된다.

3) 구멍내기

20세기 해체주의는 의복에 의도적인 손상을 입히는 파괴 행위이며, 의복을 분해하여 새로운 조형미를 창조하는 해체방식이다. 의도적으로 닳게 하거나 찢어내는 등의 방식으로 의복에 구멍을 내어 분열 또는 붕괴를 표현하며 인체를 노출시킴으로써 파괴미와 퇴폐미를 표현하여 의복을 해체한다(Jiang, 2017), (Figure 24).

최근의 해체주의는 하위문화를 통하여 개인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평범함을 벗어난 비주류를 추구하는 것으로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의복을 기반으로 하여 생경하지만 일상생활에도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한 의복을 추구한다(Figure 25).

위에서 논의된 20세기 해체주의와 최근의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특성이 나타난 작품은 <Table 4>와 같다.

2. 최근 패션에 나타난 테일러드 재킷의 해체주의 테일러드 재킷의 표현 특성

본 연구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해체주의적

테일러드 재킷의 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을 채택하고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디자이너와 작품의 선정과정을 거쳐 수집된 해체주의적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이 303점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을 패턴과 관련된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복식 구조 및 원리 해체’가 34.09%(216점), ‘비확정적인 착장방식’이 20.47%(69점), ‘구멍 내기’가 5.34%(18점)로 나타났다.

1) 복식 구조 및 원리 해체

해체주의적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의 복식 구조 및 디자인 원리해체는 몸판의 어깨를 과장하기 위해 인체를 벗어나 어깨를 과장하여 몸판과 소매 구성을 통해 인체의 비율을 파괴하였으며<Figure 26>, 재킷의 밑단 좌·우의 높이를 달리 구성하고 좌·우 몸판의 색상을 달리하여 재킷 몸판의 균형과 구성 방식을 해체하는 재킷의 반반 다르게 구성한 사례<Figure 27>, 재킷의 앞·뒤를 전환하여 마치 재킷을 뒤집어 입은 것처럼 보이는 앞·뒤를 전환한 사례<Figure 28>, 앞중심을 어깨로 위치를 이동시켜 재배열했다. 몸판의 앞중심을 기울어지게 하고 중력의 방향을 무시하여 기존의 구성의 위치를 벗어나 기존의 의복 구성방식을 파괴하는 중심을 해체한 사례<Figure 29>, <Figure 30> 칼라와 라펠을 기존의



Figure 26. 2014 F/W 콤 데 가르송.
From Comme des Garçons-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4).
<http://www.firstview.com>



Figure 27. 2016 자크 뮈스.
From Jacquemus - 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6).
<http://www.firstview.com>



Figure 28. 2017 F/W 아크네.
From Acne-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7).
<http://www.firstview.com>



Figure 29. 2017 F/W 발렌시아가 1.
From Balenciaga-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7a).
<http://www.firstview.com>

위치에서 분리하여 기존의 위치에서 벗어나 재배열하거나<Figure 31> 주머니의 위치와 타원형의 패치 포켓으로 형태에 변화를 주어<Figure 32> 평범한 대상들을 친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배열하거나 재조합하여 디테일의 위치를 재구성하며 유희를 추구하는 최근의 해체주의 표현을 찾을 수 있다.

2) 비확정적인 착장방식

해체주의적인 테일러 재킷의 비확정적인 착장 방식은 재킷의 소매 부분에 2차원적인 원단을 재킷의 라펠에 있는 슬래시를 통과하여 두르는 방식으로 두르는 위치와 슬래시 밖으로 나온 원단의 당김에 따라 인체에 밀착 또는 열린 형태의 공간을 통해 의복의 형태가 변화하는 미완성의 열린 상태의 두르기<Figure 33>, 재킷 위를 묶는 표현 방식으로 착용시 재킷의 앞의 여유 공간 즉, 열린

공간의 묶이는 방향의 다양성으로 불확정적인 형태의 사례<Figure 34>, 재킷 착용시 착용자의 의도에 따라 형태가 변화할 수 있도록 재킷의 허리 아랫부분을 이중으로 구성하여 다리를 이중 구조의 뒤로 넣으면 재킷의 뒷부분 구성이 인체의 앞으로 올라오고 다리를 이중 구조의 앞으로 넣으면 정면에서 봤을 경우 일반적인 재킷의 형태로 보이는 DIY 사례가 고찰되었다(Figure 35), (Figure 36).

3) 구멍 내기

해체주의적인 테일러 재킷의 구멍내기는 <Figure 37>과 같이 재킷의 안소매 패턴을 삭제하거나 <Figure 38>에서 볼 수 있듯이 몸판의 구성을 인체와 관련 없는 형태로 잘라내어 재킷을 구멍 내기하여 의복을 파괴하여 해체하는 패턴의 일부분을 삭제하는 사례, 의복 연결부분을 봉제하지 않고 마감처리를 제대로



Figure 30. 2017 F/W 발렌시아가 2.
From Balenciaga - 18SS Prince of Wales-checked asymmetric wool coat. (2017).
<http://www.feelway.com>



Figure 31. 2016 F/W 알렉산더 맥퀸.
From Alexander McQueen-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6).
<http://www.firstview.com>



Figure 32. 2014 F/W 자크 뤼스 2.
From Jacquemus-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4).
<http://www.firstview.com>



Figure 33. 2014 S/S 오지 야마모토.
From Yohji Yamamoto-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4).
<http://www.firstview.com>



Figure 34. 2016 F/W 아크네.
From Acne-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6).
<http://www.firstview.com>



Figure 35. 2017 F/W 발렌시아가 3.
From Balenciaga-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7b).
<http://www.firstview.com>



Figure 36. 2017 F/W 발렌시아가 4.
From Balenciaga-Prince of Wales-checked asymmetric wool coat. (2017).
<https://www.matchesfashion.com>



Figure 37. 2014 S/S 샤넬.
From Chanel-Ready-to-Wear-
Runway Collection-Women.
(2013).
<http://www.firstview.com>



Figure 38. 2017 S/S 마틴
마르지엘라.
From Martin Margiela-Haute
Couture-Runway Collection-
Women. (2017a).
<http://www.firstview.com>



Figure 39. 2017 S/S 마틴
마르지엘라.
From Martin Margiela-Haute
Couture-Runway Collection-
Women. (2017b).
<http://www.firstview.com>



Figure 40. 2014 S/S 요지
야마모토.
From Yohji Yamamoto-
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4).
<http://www.firstview.com>

하지 않아 시접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거나<Figure 39>, <Figure 40>과 같이 재킷의 소매와 몸판의 연결 부분의 봉제를 하지 않은 미봉제로 인한 기존 복식의 봉제 방식을 벗어나 의복에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해체를 표현했다.

IV. 작품 제작

1. 디자인 의도 및 방법

20세기말 패션에 확산 된 해체주의 패션 현상은 오늘날 시대에 맞는 디자인 감성과 복합적으로 접목되고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조형미를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체주의 패션이 가진 표현 특성을 분석하고 이의 표현 방식을 통하여 오랫동안 정형화되어 변화가 없었던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에 적용하여 새로운 조형미를 창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체주의적 테일러드 재킷의 표현 특성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고찰 된 ‘복식 구조 및 디자인 원리 해체’ 사례 중, 많이 시도되지 않은 구성요소인 몸판과 칼라, 그리고 소매의 해체를 적용하여 의상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작품은 원피스 드레스 2점과 재킷형 아우터 2점 오버 코트 1

점으로 총 5점의 여성복으로 구성되었다.

디자인의 개발방법은 해체주의 표현 특성의 표현 방식인 의복을 구조적으로 분리한 뒤 다시 재구성하여 기존의 위치와 기능을 무시하는 전위의 방식과 함께 탈비율, 탈균형, 탈중심 등 디자인 원리를 해체하는 방식을 반영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테일러드 재킷 구성요소인 몸판과 칼라의 전체 또는 부분 확대를 통한 과장으로 비율의 파괴로 해체를 표현하였고, 몸판과 칼라 패턴의 위치를 이동하여 칼라가 아닌 여밈으로 재구성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새로운 기능을 갖도록 의복의 구조를 해체하였다. 또한 의복의 봉제가 완전히 이루어져있지 않아 의복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해 보이게 하여 기존의 제작방식을 벗어난 의복을 구성하였으며 최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인 일상 생활에서 익숙한 의복으로서 테일러드 재킷의 패턴을 활용하여 새로운 해체주의를 추구하였다.

소재는 남·녀 복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재킷을 해체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남성복에 주로 사용되는 매끈하고 딱딱한 느낌의 단단하고 형태가 쉽게 변하지 않는 모직물인 서지와 겨울용 재킷 또는 코트에 사용되는 멜톤을 사용하였으며, 남성복에 자주 사용되는 검정을 적용하였다. 검정은 뎀드록을 계기로 남성복의 전통적인 색으로 정착했으며 20세기 후반의 해체주의 패션에서 비구

축적인 디자인에 사용되며 특정한 성에 국한되지 않은 새로운 정체감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2. 디자인 전개 및 해설

1) 전개 과정

디자인의 전개과정은 테일러드 재킷 패턴의 고유 형태를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몸판과 칼라 패턴을 그대로 스캔하고 이를 인체사진 레이어에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진

행하였으며, 테일러드 재킷 패턴이 가진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는 디자인에서 점차 패턴의 형태 변형을 통해 과장시킨 디자인의 순으로 전개하였다. 이때 구성요소의 패턴에 투명도를 주어 인체와 의복사이의 공간을 확인하며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있었으며, 패턴의 자유로운 확대, 축소, 패턴의 이동으로 해체주의적 표현 특성을 표현하며 디자인을 전개했다(Figure 41).

해체주의적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의 표현 특성 ‘복식 구조 및 디자인 원리 해체’에서 도출된 첫째,



Figure 41. 디자인 구성 개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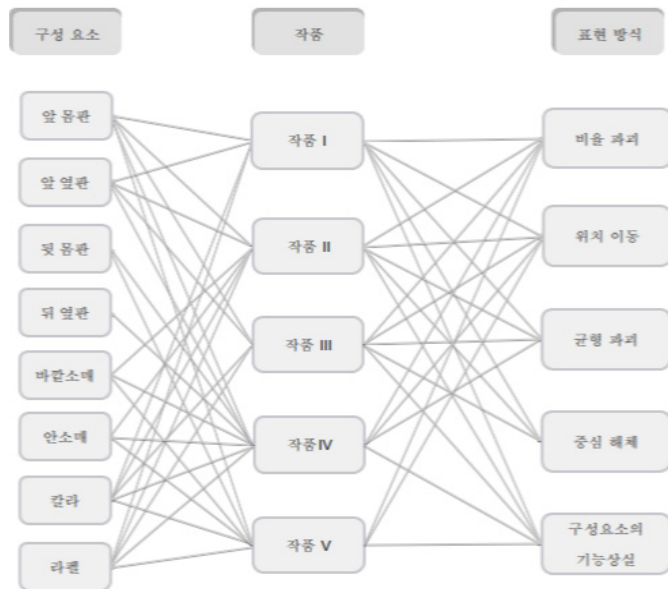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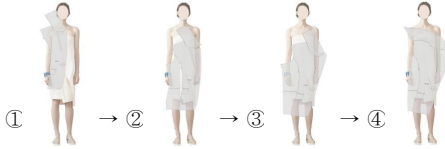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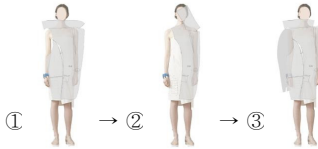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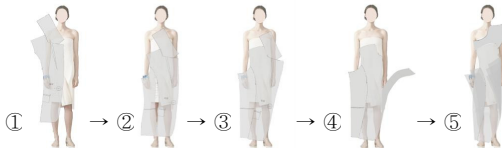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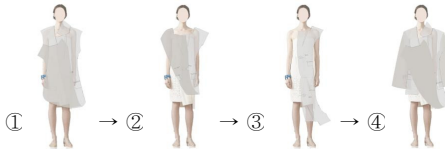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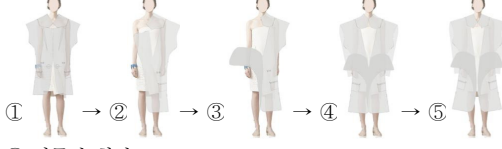


Figure 42. 재킷의 구성 요소와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방식을 활용한 디자인 구성.

Table 5. 디자인 전개 과정.

| 디자인 전개 과정 | | | |
|-----------|------|--|---|
| 작품 I | 표현방식 | 비율과피 위치이동 균형과피 중심해체 구성요소의 기능상실 |  <p>① → ② → ③ → ④</p> |
| | 구성요소 | 앞 몸판/옆판 칼라/라펠 | <p>① 몸판과 칼라패턴 확대/비율과피, 균형과피 ② 패턴의 위치이동/중심해체 ③ 라펠 확대/비율과피 ④ 칼라 확대, 재킷 형태 강조/구성요소의 기능상실</p> |
| 작품 II | 표현방식 | 비율과피 위치이동 균형과피 중심해체 구성요소의 기능상실 |  <p>① → ② → ③</p> |
| | 구성요소 | 앞 몸/옆판 바깥/안 소매 칼라/라펠 | <p>① 몸판과 칼라패턴 확대, 비율과피, 균형과피, 위치이동, 중심해체 ② 안정적인 위치 배치 ③ 어깨선이동, 소매패턴 확장, 비율/균형과피, 구성요소의 기능상실</p> |
| 작품 III | 표현방식 | 비율과피 위치이동 균형과피 중심해체 구성요소의 기능상실 |  <p>① → ② → ③ → ④ → ⑤</p> |
| | 구성요소 | 앞 몸판/옆판 칼라/라펠 | <p>① 패턴 확대, 비율과피, 위치이동 ② 패턴의 중심이동, 균형과피, 중심해체 ③ 라펠 확장, 구성요소의 기능상실 ④ 라펠 닥트부분 절개, 라펠확장 ⑤ 칼라 패턴 확장하여 가슴선 위치, 확장한 라펠 겹침</p> |
| 작품 IV | 표현방식 | 비율과피 위치이동 균형과피 구성요소의 기능상실 |  <p>① → ② → ③ → ④</p> |
| | 구성요소 | 앞 몸판/옆판 뒤 몸판/옆판 바깥/안 소매 칼라/라펠 | <p>① 앞몸판 패턴 반전하여 연장, 비율과피, 위치이동, 균형과피 ② 연장한 패턴 폴딩, 어깨 확장, 구성요소의 기능상실 ③ 어깨 비대칭으로 확장, 칼라 연장, 폴딩된 앞몸판과 연결 ④ 소매 확대하여 형태과장, 앞몸판 연결부분 너비 줄임</p> |
| 작품 V | 표현방식 | 비율과피 위치이동 구성요소의 기능상실 |  <p>① → ② → ③ → ④ → ⑤</p> |
| | 구성요소 | 앞/뒤 몸판 바깥/안 소매 칼라/라펠 | <p>① 앞몸판 확장 ② 라펠 닥트부분 절개 및 확장, 비율과피 ③ 라펠확장 ④ 라펠위치이동, 소매확장, 비율과피, 위치이동, 구성요소의 기능상실 ⑤ 앞여밈 오픈</p> |

몸판과 소매의 확대 등 비율 파괴, 둘째, 몸판의 위치를 이동한 전위, 셋째, 비대칭 등 균형 파괴, 넷째, 몸판의 중심 해체, 다섯째, 구성요소의 기능 상실과 같은 5가지 표현방식과 앞에서 고찰한 테일러드 재킷의 구성 요소 11가지(몸판-앞 몸판, 앞 옆판, 뒷 몸판, 뒤 옆판, 바깥소매, 안소매, 디테일-칼라, 라펠, 벤트, 주머니, 단추)를 개별 또는 중복으로 조합하면 다양한 디자인 전개실험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시도 되지 않은 테일러드 재킷의 구성요소 8가지(앞 몸판, 앞 옆판, 뒷 몸판, 뒤 옆판, 소매-바깥소매, 안소매, 칼라, 라펠)와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방식 중 5가지(비율파괴, 위치이동, 균형파괴, 중심해체, 구성요소의 기능상실)를 조합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였다(Figure 42).

2) 해설

작품 I은 해체주의적 표현 방식 비율파괴, 위치이동, 균형파괴, 중심해체, 구성요소의 기능상실 표현 방식을 테일러드 재킷의 구성요소 앞몸판, 앞옆판, 칼라, 라펠의 패턴에 적용한 디자인으로서, 패턴을 확대하여 인체의 비율을 벗어난 비율파괴, 앞 중심을 옆선으로 이동시킨 중심해체, 앞과 뒤, 좌우의 비대칭 구조를 통한 균형 파괴와 칼라의 위치를 이동시켜 기존의 기능을 상실하는 방식으로 해체주의를 표현한 원피스드레스이다(Figure 43).

작품 II는 비율파괴, 위치이동, 균형파괴, 중심해체, 구성요소의 기능상실 표현 방식을 테일러드 재킷의 구성요소 앞몸판, 앞옆판, 바깥소매, 안소매, 칼라, 라펠의 패턴에 적용한 디자인으로서, 패턴을 확대하여 인체의 비율을 벗어나 과장된 형태로 비율을 파괴하고 중심을 이동시켜 해체하였으며 소매와 라펠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이로 인한 기능상실과 비대칭 구조를 통한 균형파괴로 해체주의를 표현한 재킷형 아우터이다(Figure 44).

작품 III은 비율파괴, 위치이동, 균형파괴, 중심해체, 구성요소의 기능상실 표현 방식을 테일러드

재킷의 구성요소인 앞몸판, 앞옆판, 칼라, 라펠의 패턴에 적용한 디자인으로서, 패턴을 확대하고 폭을 확장시켜 어깨로 위치를 이동시키고 다트부분을 절개하여 더욱 확장된 라펠을 앞옆판과 앞몸판 연결부분과 앞몸판에서 여러 겹으로 겹치게 하고 이의 높이를 달리하여 본래 테일러드 재킷이 가진 대칭의 균형을 파괴한 원피스드레스이다. 이는 또한 칼라와 라펠, 몸판의 위치이동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하여 해체주의를 표현하였다(Figure 45). 작품 IV는 비율파괴, 위치이동, 균형파괴, 구성요소의 기능상실 표현 방식을 테일러드 재킷의 구성요소 앞몸판, 앞옆판, 뒷몸판, 뒤옆판, 바깥소매, 안소매, 칼라, 라펠의 패턴에 적용한 디자인으로서, 앞몸판 2장을 밑단끼리 연결하여 길게 연장시키고 이를 반대편 몸판으로 접어들려 칼라와 연결하여 앞몸판을 재구성한 재킷형 아우터이다. 이는 또한 좌우의 어깨 너비에 차이를 주어 균형을 파괴하였으며 소매와 몸판에 미봉제 방식을 사용하여 착용자의 의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DIY형식의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을 표현하였다(Figure 46).











작품V는 비율파괴, 위치이동, 구성요소의 기능상실 표현 방식을 테일러드 재킷의 구성요소 앞몸판, 앞옆판, 칼라, 라펠의 패턴에 적용한 디자인으로서, 몸판과 칼라, 라펠의 패턴을 확대하여 비율을 파괴하고 라펠의 위치를 이동시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여 해체주의를 표현한 오버코트이다(Figure 47).

본 연구의 디자인 전개 과정 <Table 5>와 작품 해설 <Table 6>은 다음과 같다.

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해체주의적 패션 현상의 표현 특성을 통해 해체주의의 다양한 디자인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테일러드

Table 6. 작품 해설.

| 세부 사항 | | 작품 사진 |
|--------|--|--|
| 작품 I | 아이템 : 원피스 드레스 |  |
| | 색상 : 검정 | |
| | 소재 : 서지(울 100%) | |
| | 도식화 :  | |
| 작품 II | 아이템 : 아우터 |  |
| | 색상 : 검정 | |
| | 소재 : 서지(울 100%) | |
| | 도식화 :  | |
| 작품 III | 아이템 : 원피스 드레스 |  |
| | 색상 : 검정 | |
| | 소재 : 서지(울 100%) | |
| | 도식화 :  | |
| 작품 IV | 아이템 : 아우터 |  |
| | 색상 : 검정 | |
| | 소재 : 서지(울 100%) | |
| | 도식화 :  | |
| 작품 V | 아이템 : 오버코트 |  |
| | 색상 : 검정 | |
| | 소재 : 멜튼(울 90%, 나일론 10%) | |
| | 도식화 :  | |

재킷의 패턴에 적용하여 패션 디자인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랜 기간 정형적인 형태로 유지되어 온 테일러드 재킷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테일러드 재킷의 구성 요소와 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해체주의 패션 현상의 표현 특성을 탐구하고 최근 패션에 나타나는 해체주의적 테일러드 재킷의 표현 특성을 분석하여 패턴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특성으로서 ‘복식 구조 및 디자인 원리해체’, ‘비확정적인 착장방식’, ‘구멍내기’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가장 높은 비율로 활발한 해체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복식 구조 및 디자인 원리 해체’에서 최근 패션에 비교적 적게 적용된 테일러드 재킷의 몸판(앞몸판, 앞옆판, 뒤몸판, 뒤옆판)과 디테일(칼라, 라펠)의 패턴을 해체주의적 표현 특성에 적용하여 패션디자인 5점을 개발 및 제작하였다. 디자인 개발은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특성 중 복식구조 및 디자인원리의 해체로 의복을 구조적으로 분리한 뒤 재구성하여 기존의 위치와 기능을 무시하는 전위 방식과 탈비율, 탈균형, 탈중심의 디자인 원리해체의 방식을 모두 반영하여 진행하였으며,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패턴 조각의 자유로운 위치이동 및 확대와 왜곡을 통한 형태변화를 시도하였다. 각각의 디자인은 비율파괴, 위치이동, 균형파괴, 중심해체, 구성의 기능 상실 등 해체주의적 표현방식 5가지와 패턴조각 8가지(몸판- 앞, 앞옆, 뒤, 뒤옆, 소매-바깥, 안, 디테일-칼라, 라펠)를 개별 혹은 중복으로 조합하여 개발되었다. 개발된 작품은 울 서지 소재의 원피스드레스 2점과 재킷 2점, 그리고 울나 일론 멜톤 소재의 오버코트 1점이며, 모두 솔리드 블랙 색상으로 제작되었다.

본 연구는 해체주의적인 표현 특성을 활용하여 과장된 형태, 재조합과 전위를 통해 재킷의 구성 요소가 가진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인체의 비율을 파괴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를 추구하였으며,

이로써 오랜 시간 형태 변화가 없던 테일러드 재킷으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의상디자인을 개발하였다. 해체주의적 실험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모색한 본 연구가 패션디자인 개발의 새로운 방법적 모형개발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cne-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6). *firstVIEW*. Retrieved October 4,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43&collection=44187&image=6378494#.WqJanrfHOuK
- Acne-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7). *firstVIEW*. Retrieved October 9,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02&collection=47086&image=7300671#.WqJTKLfHOuK
- Ahn, H. N. (2008). *A study on tailored collar pattern for jacke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Alexander McQueen-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6). *firstVIEW*. Retrieved October 1,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21&collection=43957&image=6325091#.WqJX5bHOuK
- Balenciaga - 18SS Prince of Wales-checked asymmetric wool coat. (2017). *FeelWAY*. Retrieved October 9, 2017, from http://www.feelway.com/gv_Balenciaga_3133645062.html
- Balenciaga - Prince of Wales-checked asymmetric wool coat. (2017). *Matchesfashion*. Retrieved October 24, 2017, from <https://www.matchesfashion.com/products/Balenciaga-Prince-of-Wales-checked-asymmetric-wool-coat--1179183>
- Balenciaga-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7a). *firstVIEW*. Retrieved October 4,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13&collection=47109&image=7308996#.WqJbDLfHOuK
- Balenciaga-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7b). *firstVIEW*. Retrieved October 11,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4&collection=47109&image=7308887#.WqJTxFfHOuK
- Boucher, F., & Deslandres, Y. (1996).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New York: Thames and Hudson.
- Buxbaum, G. (2009). *20세기 패션 아이콘*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Geum, K. S., Nam, H. N., Park, H. S., & Huh, J. S., Trans.). Seoul: Misulmunhwa.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Cawthorne, N. (1998). *Key moments in fashion: From haute couture to streetwear, key collections, major figures and crucial moments that changed the course of fashion history from 1890 to the 1990s*. London: Hamlyn.

- Chanel-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3). *firstVIEW*. Retrieved October 9,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35&collection=37431&image=5286150#.WqJc8LfHOUk
- Cho, G. Y. (2016). *클래식 여성복 패턴* [Classic women's wear pattern design]. Seoul: Booknamu.
- Choi, G. M., Lee, J. O., Lee, H. S., & Nam, Y. J. (2009). *어패럴 메이킹 여성복 재킷* [Apparel making jacket]. Seoul: Gyohakyeongusa.
- Choi, Y. O. (1994). Focused on western heraldry, dress and its ornaments of the middle ages: A study on symbolism of western herald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8(1), 140-159.
- Christian Dior (1905-1957). (n.d.). *The Red List*. Retrieved September 26, 2017, from <https://theredlist.com/wiki-2-23-1185-1189-view-revolutionary-profile-christian-dior.html>
- Chung, H. S. (2003). *서양복식문화사* [A history of fashion]. Paju: Gyomun Publishers.
- Comme des Garçons-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4). *firstVIEW*. Retrieved October 9,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4&collection=38868&image=5501774#.WqJRxbfHOUk
- Jacquemus-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4). *firstVIEW*. Retrieved October 9,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19&collection=38786&image=5485453#.WqJMjrfHOUl
- Jacquemus-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6). *firstVIEW*. Retrieved October 9,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67&collection=42968&image=6104363#.WqJSOLfHOUk
- Jacques Fath. (1940-1944). (n.d.). *The Red List*. Retrieved September 20, 2017, from <https://theredlist.com/wiki-2-23-1249-1255-view-1940s-profile-jacques-fath-3.html>
- Jang, J. I., & Lee, Y. H. (2006). Deconstructive fashion expressed in the work of Martin Margiela.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4(1), 64-77.
- Jiang, M. (2017). *Decomposition of deconstruction in denim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John Paul Gaultier backwards jacket. (2014, January 14). *FIDM MUSEUM & GALLERIES*. Retrieved September 11, 2017, from <http://blog.fidmmuseum.org/museum/1980s>
- Kim, G. Y. (2008). *A study on the collar construction factors of the women's tailored jacke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 Kim, H. L. (2010).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women's suits in modern fashion: Focused on fashion collections from 2003 F/W to 2009 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Kim, J. H., Kwon, M. J., & Lee, S. J. (1999). A study on deconstructional methods in modern fashion design and consumer acceptance.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7(4), 578-596.
- Kim, J. Y. (1995). *Deconstruction expressed in the contemporary costu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S. B. (1994).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Fashion design and deconstruction]. *Collection of Hansung University Dissertations*, 18(1), 487-511.
- Kim, S. E., & Ha, J. S. (2016). A study on aesthetic values of neo-deconstructive fashion: Focused on Vetments, Marques'Almeida, Jacquemu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6(4), 129-150. doi:10.18652/2016.16.4.8
- Kwon, H. S. (2007). The mode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ism expressed in fashion design: Centering on review of literatures and precedent researche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1(5), 110-123.
- Lee, H. C. (2012). *패턴의 정석* [Rules of pattern]. Paju: Gyomoon Publishers.
- Lee, H. S. (2002). *The study on deconstructionism in contemporary art: Focused on Jacques Derrid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Lee, J. J., & Park, S. M. (2011). *Fashion & culture*. Seoul: Yekyong.
- Lee, J. Y. (2007). *A study on the forms and meanings of women's pants in fashion histo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Lee, S. R. (2004). *이승렬의 패턴 이야기 2* [Lee Seungryeol' pattern story 2]. Seoul: Technique & Sensibility.
- Lim, G. T. (2014). *De-constructivism and architecture theory*. Seoul: Spacetime.
- Marques Almeida-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5). *firstVIEW*. Retrieved October 9,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6&collection=41478&image=5891504#.WqJRN7fHOUk
- Martin Margiela-Haute Couture-Runway Collection-Women. (2017a). *firstVIEW*. Retrieved October 9,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64&collection=46501&image=7103935#.WqJdjrfHOUk
- Martin Margiela-Haute Couture-Runway Collection-Women. (2017b). *firstVIEW*. Retrieved October 12,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58&collection=46501&image=7103929#.WqJdrffHOUk
- Na, S. I. (2003). The historical changes of pourpoint, a jacket of western men's costume. *The Journal of Design*, 12(-), 1-26.
- Park, S. H., & Choi, J. O. (2008). Study on sleeve patterns of men's jackets from 17C to 19C. *Journal of the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0(2), 105-115.
- Pierre, A. (2011). *Balenciaga: Cristobal Balenciaga Museoa*. London: Thames & Hudson.
- Rei Kawakubo-Comme des Garçons (1942). (n.d.). *The Red List*. Retrieved October 6, 2017, from <https://theredlist.com/wiki-2-23-1249-1259-view-1980s-profile-rei-kawakubo-comme-des-garcons-1.html>

- Shin, S. O. (2016). *서양 복식사*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Seoul: Soohaksa.
- Stephanie Seymour for Ralph Lauren, 1995. (n.d.). *WORDPRESS*. Retrieved September 13, 2017, from <https://pleasurephoto.wordpress.com/2012/11/07/stephanie-seymour-for-ralph-lauren-1995>
- The Architects at Work: Issey Miyake, Rei Kawakubo, and Yohji Yamamoto. (2016, June 23). *what grandma wore*. Retrieved June 12, 2016, from <https://www.whatgrandmawore.com/single-post/2016/06/23/The-Architects-at-Work-Issey-Miyake-Rei-Kawakubo-and-Yohji-Yamamoto>
- Vetements_offical. (2016). *Instagram*. Retrieved December 20, 2017, from https://www.instagram.com/p/BbYAVfMn82C/?taken-by=vetements_offical
- Vetements-Ready-to-Wear-Spring Summer 2016. (2016). *vetementswebsite*. Retrieved December 18, 2017, from <http://vetementswebsite.com/wp-content/themes/Vetements/timthumb.php?src=http://vetementswebsite.com/wp-content/uploads/2016/06/Vetements-ss16-099.jpg&w=800&h=1200>
- Vivienne Westwood. (1991). *My Haute Wardrobe*. Retrieved September 16, 2017, from <https://myhautewardrobe.com/products/rare-ss-1991-vivienne-westwood-cut-slash-pull-me-t-va-museum-white-dress-shirt>
- Walking costume. (n.d.). *V&A*. Retrieved September 23, 2017, from <http://collections.vam.ac.uk/item/O13856/walking-costume-jacques-doucet>
- Worsley, H. (2012). *패션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 [100 ideas that changed fashion] (Kim, J. Y., Trans.). Seoul: Seedpost. (Original Work Published 2011)
- Yohji Yamamoto-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4). *firstVIEW*. Retrieved October 5,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27&collection=37381&image=5278276#.Wq9kwbfBGU1
- Yohji Yamamoto-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2014). *firstVIEW*. Retrieved October 12,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211&collection=37381&image=5278460#.WqJY07fHOUk
- Yoo, S. O., Lee, E. Y., & Hwang, S. J. (1996). *복식 문화* [Dress code]. Paju: Gyomun Publishers.
- Yves Saint Laurent (1936-2008). (n.d.). *The Red List*. Retrieved September 25, 2017, from <https://theredlist.com/wiki-2-23-1249-1257-view-1960s-profile-yves-saint-laurent-3.html>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by Pattern Deconstruction of Tailored Jacket

Cheon, Mi Ja • Park, Ju Hee⁺

Master,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 deconstructive fashion phenomenon that is being expanded again and apply it to a tailored jacket and develop fashion design. It conducted the literature research to investigate pattern pieces of a tailored jacket maintaining a standardized form for a long time with the historical examination and the case study to explor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deconstruction shown from fashion recently and those of pattern deconstruction shown from a tailored jacket which are ‘the deconstruction of clothing structures and design principles’, ‘the indeterminate mode of wearing’, and ‘the perforating’.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on the contemporary fashion under the ‘deconstruction of clothing structures and design principles’, 5 fashion design works applying the deconstruction of the bodice, sleeve and detail patterns of a tailored jacket were developed and manufactured. As for the design development, tailored jacket was separated and reorganized in a structural manner using the deconstruction of clothing structures and design principles, or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deconstructive fashion, reflecting the avant-garde neglecting the existing positions and functions and also de-proportioned, de-balanced and de-centered deconstruction of design principles. Besides, there was an attempt at the formative changes through free locational movement, extension and distortion of a pattern piece using Photoshop. Each design was developed by 5 expressive methods of the deconstruction including the destruction of proportion and balance, movement of location, deconstruction of center and the functional loss of elements and by individual or overlapped combination of 8 pattern pieces(front bodice, front side, rear bodice, rear side, outer sleeve, undersleeve, collar and lapels). The works developed contain 2 one-piece dresses and 2 jackets made of wool serge, 1 overcoat made of wool nylon melton in solid black.

Key words : deconstruction, deconstructive fashion, tailored jacket, deconstructive pattern, fashion design